

# 산불 피해목 자원화 나선다

### 무주군, 효율적 이용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 가저

무주군이 지난 3월 발생했던 부남면 대소리 일원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목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무주군 청 소회의실에서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주군과 무주 목재펠릿공장, 군산 유니드비티플러스, 남원산림조합, 무주군 산림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불 피해 규모 등의 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한 참석 기관 및 업체별로 활용 계획을 제시하는 등 자원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불 피해 조기 극복

이 가능하도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산불 피해목에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특히, 산불 피해목 중 이용이 가능한 목재는 건축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필포용, 보드용, 에너지용 등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승준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산림조성팀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불 피해지 복구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목을 활용 해 숲을 되살리고 탄소중립 실천 기회를 여는 자리였다"라며 "무주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내 협력 기

반을 조성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산불 피해 면적은 232.8ha로 주요 피해 수종은 참나무류와 소나무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벌채 및 사방사업 등)에 따라 10월부터 벌채하고 내년 3월부터는 조림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을러 산림 피해목의 활용 증대, 산림자원 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나아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21~22일 무주 등나무운동장 등에서 열린 '2025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사진 왼쪽)과 22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학 검도대회'.



## 무주, 스포츠 열기로 들쭉

###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국무총리기 시도대학 검도대회

'2025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12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학 검도대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무주군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체육회가 주최, 한국축구클럽연맹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후원한 2025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21일과 22일 등나무운동장, 무주중학교, 적산면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48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해 첫날 그룹별 예선 리그, 둘째 날 준결승 및 결승 경기를

펼쳤다. 1일 기준 약 1,800명(선수 820구대회)과 12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학 검도대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무주군에서 개최됐다.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제12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학 검도대회'가 열렸다.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와 무주군검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 700여 명이 7개 부분의 단체전과, 9개 부분의 개인전에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검도대회로 양일간 무주를 찾은 방문객은 선수와 가족, 대회 관계자 등 1,700명으로 집계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무주군에 활기가 돌고 있다"라며 "무주가 모든 중점을 이루는 스포츠 강군으로 자리매김해 스포츠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대회 환경과 훈련 여건을 만드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 한해 무주반딧불배하프마라톤 대회 등 자전거, 탁구, 축구, 검도, 축구 등 총 30개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자전거,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뜯봉샘과 수분마을' 생태걷기 행사

장수군은 지난 20일 뜯봉샘 생태공원에서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생태관광지 '금강첫물 뜯봉샘과 수분마을' 생태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금강첫물 뜯봉샘과 수분마을'은 별

종위기 야생생물인 하늘다람쥐, 세물투구꽃을 포함해 1,3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수분공소와 이성계 설화 등 풍부한 인문학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뜯봉샘과 수분마을'이 환경부로부터 '8월 이달의 국가생태관광지'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 군수와 군 간부공무원들이 생태관광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최 군수와 군 간부공무원들은 뜯봉샘, 자작나무 숲, 하늘다람쥐 비밀정원 등 생태관광지 코스를 약 3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느낀 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분마을 시니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근대문화유산인 수분공소와 마을 우물을 둘러보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밥상'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특히 '바블시스터즈'로 불리는 수분마을 어르신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비빔밥, 주먹밥, 송개떡 등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에게 장수의 맛과 정을 전해 걸기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난 20일 뜯봉샘 생태공원에서 열린 생태관광지 선정 걷기 행사.

## 꿈지락꿈지락 동아리, 따뜻한 나눔

###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공동체동아리육성사업 일환 마음 나뉘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공동체동아리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꿈지락꿈지락' 동아리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꿈지락꿈지락' 동아리 회원들은 6회기에 걸쳐 진행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신생아 이불을 직접 제작했으며, 최근 이불을 무주군 관내 임신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

건과를 방문했다.

이번에 전달된 신생아 이불은 도안그리기부터 자수, 솜을 넣어 누비는 작업까지 전 과정이 회원들의 정성 가득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공동체동아리육성사업을 통해 총 12개 동아리를 지원하며, 이들 동아리는 지역 사회 연계 활동에 필수로 참여하는 조건



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꿈지락꿈지락' 동아리의 이번 신생아 이불 나눔 또한 이러한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12개 동아리 회원들은 마을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제과 만들기, 무료 공연, 환경교육,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각종 공사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 장마철 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 최훈식 장수군수, 하천·공사 현장 등 찾아 피해 예방 총력 당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각종 공사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와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해 우려지역에 선제적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군수는 장수누리파크 캠핑장을 시작으로 △오전 소하천 정비공사 △축립교 재가설 및 선형개선 사업 △지방하천(오수천) 유지관리사업 △장수읍 수분리 산사태 위험지역 및 개정저수지 안전점검 △시설원예하우스 현장을 점검했다.

각 현장에서 임시 배수시설, 자재 보

관상태, 안전펜스 설치상태, 주민 긴급대피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번암면 축립교 재가설 및 선형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계획 총수위 확보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 최 군수는 "최근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장수군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비상 시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해 장마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물'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진안군은 공식 유통 채널인 '진안고원물'을 더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쇼핑몰 만들기 위해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진안고원물'을 이용해 본 소비자들이 느낀 만족도와 불편했던 점,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 등을 솔직하게 듣고, 입점 업체들의 운영상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은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참여는 진안고원물 스마트 스토어에 게시된 팝업창을 통해 링크로 접속해 할 수 있고 입점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설문 내용은 △이용 만족도, △불편 사항, △개선 요구사항, △추가로 원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와 입점 업체 간 인식 차이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진안고원물을 더 믿고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장터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입점업체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며, "진안고원물이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 21일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무주군 부남면 제32회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열린 가운데, 주민들이 난타 공연을 직접 펼치고 있다.

## 무주 부남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잔치 성료

무주군 부남면 제32회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지난 21일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부남면이 주최하고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준비한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화합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9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영마을 김종오 씨, 상평당마을 이화경 씨, 울소마을 심미기 등 다양한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유영마을 김종오 씨, 상평당마을 이화경 씨, 울소마을 심미기 등 다양한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상했다.

이 외에도 식암마을 유상근 씨, 울소마을 박신근 씨, 대소마을 유영보 씨, 김중수 무주농협 부남지점장이 부남면장 감사패를 받아 의미를 더했다. 재경무주군민회에서도 참석한 가운데 김철호 회장이 부남면 발전 기금 1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한편, 무주군 부남면은 금강과 마실길, 버섯길 등을 기반으로 래프팅과 트레킹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사과와 고추, 인삼과 갯잎을 주로 생산하며 다달방야역마을이 보존과 시연을 통해 마을 자원의 우수성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군이 추진하고 있는 보훈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내 7개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장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수군의 보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정물군경유족회, 정물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장 7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보훈단체 운영에 있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고려되고 있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복지 혜택 확대, 예우 행사 활성화 등의 건의도 제기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19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5필지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위원,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필지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의신청 필지는 현장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가의 적정성이 검토됐으며,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종료시점지기도 함께 논의됐다.

심의 결과, 조정된 필지는 6월 28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조정된 공시가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이디야 진안마이산점 진안군에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지난 20일 부귀면 일원에 위치한 이디야 진안 마이산점(대표 이승연)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서 이승연 대표는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미래 인재 양성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해주시는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재능개발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안군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지역 사회의 상생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